피델 카스트로 타계… 생전의 그의 모습 책으로

일부 책 품절상태서 재인쇄 나서기도… 카스트로의 정신 재평가

쿠바의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최근 타계하면서 생전의 그와 관련된 책들도 주목을 끈다. 이 때문에 일부 책은 품절상태였다가 재인쇄에 나서기도 한 상황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난 카스트로 의장은 체 게바라와 함께 혁명을 이끈 쿠바의 혁명영웅이기도 하지만 반세기 넘게 장기집권에 나서면서 자유를 억압한 독재자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엇갈리는 평가와 양국 간 국교단절 탓에 국내에서도 카스트로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관심이 낮았던 편이다. 그러나 카스트로의 타계 소식에 출판계에서도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그와 관련된 서적들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29일 인터넷서점 예스 24에 따르면 카스트로와 관련된 책들은 5종 정도가 판매 중이다. ▲들어라! 미국이여(산지니) ▲피델 카스트로(현대문학) ▲김정일과 카스트로가 경제위기를 만났을 때(전략과문화) ▲카스트로와 마르케스(예문) ▲카스트로와 쿠바 혁명(주니어김영사) 등이다.

'들어라! 미국이여'는 카스트로가 내놨던 연설과 대담을 모은 책들로 전쟁, 인종차별, 경제적 불의 등에 대해 비판한 2000년 유엔 밀레니엄정상회담 당시를 포함해 미국, 쿠바,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파나마 등에서 행한 연설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

'마이 라이프'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피델 카스트로'는 공동저자 이냐시오 라모네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여 동안 100시간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 카스트로에 대해 조명한 책이다.

카스트로의 어린 시절, 체 게바라와의 관계, 핵전쟁의 위험, 암살에 당할 뻔한 위기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혁명영웅이자 독재자로 추앙과 비난을 동시에 받아온 카스트로에 대해 담아냈다.

'김정일과 카스트로가 경제위기를 만났을 때'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대입해 북한과 쿠바의 사례를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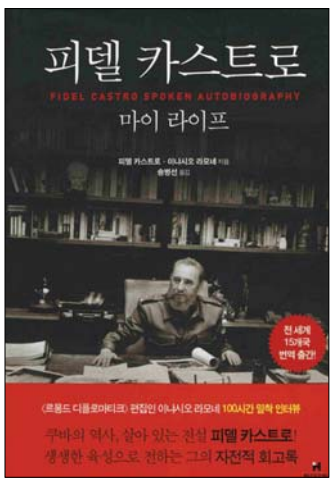
'카스트로와 마르케스'는 카스트로와 198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콜롬비아 문학가 가브리엘 마르케스가 깊은 우정을 맺고 있었다는 점을 조명하면서 그들의 공생관계를 짚어본 책이다. '카스트로와 쿠바 혁명'은 청소년들을 위해 쿠바의 역사와 혁명 과정 등을 기술한 역사학습만화다.

이 밖에도 ▲피델 카스트로의 체(피델 카스트로 저·녹두) ▲레볼루션(피델 카스트로 등 저·미토) ▲피델 카스트로(알브레흐트 하게만 저·지식경영사) ▲피델카스트로의 쿠바(그레고리 토지안 저·황매) ▲피델 카스트로&체 게바라(사이먼 리드헨리 저·21세기북스) 등의 책이 있지만 품절돼있는 상태다. 인기가 많아서라기보다 큰 호응이 없는 가운데 추가 인쇄를 하지 않은 탓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카스트로:아바나 선언(피델 카스트로 저·프레시안북) ▲피델 카스트로(로버트 E 퀴크 저·홍익출판사) 등의 책은 절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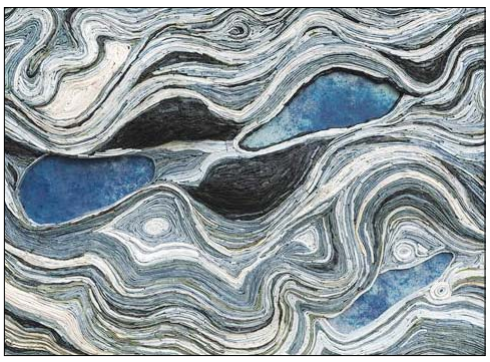
이를 보듯 국내에서 그동안 카스트로와 관련된 책들은 그다지 눈길을 끌지 못했다. '들어라! 미국이여'를 출간한 강수걸 산지니 대표는 "카스트로의 책은 체 게바라 관련 책처럼 잘 팔리진 않았던 것 같다"며 "2000부 정도 찍었는데 절반 정도를 소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스트로가 타계한 이후 일부 책들은 주목도를 고려해 재인쇄에 나서는 모습도 보인다. 현대문학의 '피델 카스트로'는 재고가 품절돼있는 상태에서 재인쇄를 하면서 다시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델 카스트로 자전적 회고록

현대문학 관계자는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 이번 카스트로 타계를 계기로 독자들이 찾지 않을까 싶어 재인쇄하게 됐다"며 "카스트로를 직접 인터뷰해 심도 있게 다룬 자서전"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최정윤 '돌을 그림-인생 흐름' 개인전

"내가 한지를 택했던 이유는 한지가 한국적인 감성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작가의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섬세하고 부드러운 촉각성과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동양의 정신성을 보여 주는 속성 때문일 것이다."

최정윤 작가의 '돌을 그림-인생 흐름' 개인전이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 서울관에서 열린다.

최정윤 작가는 한지와 천연염색을 사용하여 입체회화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작품에는 겨울의 거센 바람에 떨어진 나뭇잎이 흙과 하나가 되고, 그 자양분이 힘이 되어 또 다시 새싹이 돋음을 표현한다. 최 작가는 이 같은 작업을 '돌을 그림'(Pictorial Relief)이라 명명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한국적 생명력을 한지에 부여한다.

자연스럽게 염색된 한지에선 아름다운 자연의 무한한 색과 불어오는 잔잔한 바람결을, 대지의 지층처럼 촘촘하게 쌓여진 한지의 결에선 자연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다.

작가는 "돌을 그림 작품 제작과정은 수신이나 끝없는 수행의 과정 중 하나이다. 한지를 오려 붙이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 작게는 일상의 고뇌를 덜어내고 나아가 자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최정윤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이번 전시는 작가의 13번째 개인전이다. 전주시문영 창작예술공간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현대판화가협회회원, 세계종이조형작가회 회원, 신미술대전 초대작가, 전국한지대전 초대작가로 활동 중이다.

전북도립미술관에 이어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연장전시를 이어간다. /정해은 기자

"많은 이야기들이 가슴 저 밑바닥으로 들어와 무수하게 쌓이는 전주 소리"

전주문화재단, 전주 이야기자원 공연화 사업 선정작 '달릉개' 시연

"소리가 뭐냐? 세상사는 얘기들이 가슴에 쌓여 온 몸에 차는 것이 소리여. 응구사요, 응구사요, 열무사요, 열무사요., 평범한 사람들의 그저 그런 소리, 우리 엄니 고생고생 헌 소리, 우리 아비 놀음 허고 바람피운 소리, 누구나 무심히 지나치는 소리, 가차운 소리, 먼 소리, 웃긴 소리, 슬픈 소리, 한 맺힌 소리, 깊고 낮은 한숨 소리,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꽃잎 피고 지는 소리, 온갖 자연의 소리와 빛깔! 아주 낮은 골짜기에 물이 모이듯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가슴 저 밑바닥으로 들어와서 무수하게 쌓이고, 그것들이 흘어졌다 뭉치고 뭉쳤다가 다시 흐트러짐선 어우러지는 이야기들. 그것들을 사무치게 갈고 오래오래 삭히고 묵혀서 한 마디, 한 마디, 꺼내는 것이 소리여. 그것이 전주소리여."(희곡 '달릉개' 중 주태백의 대사)

전주문화재단은(이사장 김승수)는 2016 전주이야기자원 공연화 지원사업 선정작인 '달릉개(부제:부채 장수, 전주 명창 되다)'를 오는 12월 1일 오후 7시 30분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무대에서 선보인다.

전주문화재단은 '달릉개'를 내달 1일 오후 7시 30분 우진문화공간에서 선보인다.

사업은 전주지역 이야기를 중심으로 연극·무용·음악극·창극 등 공연예술분야에서 특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5월 1단계 제작기획서 공모를 시작으로 2단계 대본 공모, 3단계 공연 실연계획서 등위 심사를 거쳐 스토리텔링문화그룹 얘기보따리의 작품이 선정됐다.

극작가 최기우 씨가 집필한 이번 작품은 전주부 통인청 대사습에 참가했다가 전주 귀명창들에게 조롱당해 소리를 포기하고 부채 장수가 된 청년 달릉개가 전주에서 떠돌이명창·서예가·박진효자비·남문시장상인 등을 만난 뒤, 소리의 본질 '전주 소리는 사람들 곁에 선 소리'을 터득하고 진정한 소리꾼이 된다는 이야기를 담아낸다. 작품에는 전주 귀명창, 전주대사습, 전주 음식, 전주 막걸리, 전주천, 전주 글씨자랑, 전주8경과 전주8미, 전주부채, 어전명창 모흥갑과 주덕기의 대결 등 전주의 특색을 녹여낸다. /정해은 기자

이소암시인 '눈부시다 그 꽃' 출판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소암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눈부시다 그 꽃'(도서출판 시와 시학)을 냈다.

지난 2012년에 낸 '내 몸에 푸른 잎'(시문학사)에 이어 두 번째 시집으로 이번 시집에는 깊은 사색과 통찰 끝에 나오는 짧은 시행, 그리고 일상적이지만 간결한 이미지 전달이 주류를 이루는 50편의 주옥같은 작품과 시인의 애끓은 현실 인식이 담긴 '함축적 서사'가 골고루 담겨 있다.

작품 전반에 흐르는 서정의 토대 위에 단 몇 줄의 시행을 펼쳐 놓는 이소암 시인은 오늘의 현실 문제까지 냉철하게 꼬집고 있다. '초승달'에서 시인은 "실업(失業)의 사다리/달까지 이르렀네/ 배고픈 사람들/늦 가을 달 갉아먹어/달, 저토록 야위어 버렸네"라고 현대 사회의 아픔을 지적하고 있다.

시인은 책머리에 스스로 "시, 청춘이었다. 사랑하는 이였다. 존재 근원이었으며 힘이었다. 그럴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일상적 서정에서 사회현실에 대한 고발까지를 아우르는 시인의 예지와 감성이 그녀의 세 번째 시집을 기다리게 만든다.

이소암 시인은 군산대 대학원 국문과를 나왔고, 2000년 자유문학으로 등단했다.

한국작가회의, 전북작가회의 회원이며, 군산대 평생교육원 문예창작 전담교수로 활동 중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완주문화재단 '페스티벌 누에(Festival nu-e) 성료

11월 4일 'Rock in nu-e'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이어 온 '페스티벌 누에(Festival NU-E): 한 달 동안의 일상적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재)완주문화재단 G3아트플랫폼사업단은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공동창조공간 누에(nu-e)' 일원에서 열린 이번 페스티벌에 800여명이 참가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음악, 전시, 공연, 사진, 놀이, 캠프 등 다양한 분야를 결합한 예술체험 페스티벌로서 지역주민과 예술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주축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문화예술인과 주민커뮤니티, 그리고 관람객이 참여한 네트워크형 축제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여기에 '나는 난로다'축제에 참여해 '미끄럼틀 만들기', '썰매만들기', '3D프린팅 도자기 만들기'와 같이 유관단체와 함께 주민의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12월 3일까지 진행되는 '완주 숲가락 공동육아모임'의 사진전 '흙과 함께 노는 아이들'과 11월 23일 진행된 '깔깔깔 인형극단'의 '으라차차 방귀며느리', 11월 26일 진행된 '청소년 완주를 노래하다'의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 '내 목소리를 들어줘'와 지역 청년들과 함께 한 '완주네트워크 파티'와 같이 페스티벌 기간 내에 다양한 지역커뮤니티의 참여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완주=이중복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1월 30일〉

▷쥐띠
48년생: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생기고 결과는 좋다.
60년생: 일적인 능률이 오르니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
7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는 않으나 외부적인 일은 이득.
84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신속히 진행하라.

▷소띠
49년생: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가 아닌 물러날 때다.
61년생: 자신이 투자한 만큼만 돌려받는 운이니 욕심은 금물이다.
73년생: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운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
85년생: 흔들리는 모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감 하락

▷호랑이띠
50년생: 외부적인 일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운이다.
62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마음을 다스리고 천천히 진행하라.
74년생: 인덕이 있거나 사람으로 인해 기쁜 일이 있는 운이다.
86년생: 경쟁자로 인해 힘든 운이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꾸준히.

▷토끼띠
51년생: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수습하라.
63년생: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라.
75년생: 그동안 해왔던 일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
87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용띠
52년생: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때.
64년생: 자존심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현명한 대처 필요.
76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자주 막히는 때이니 때를 기다리라.
88년생: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운이나 시비수가 따른다.

▷뱀띠
53년생: 겉은 화려한 듯 하나 내부는 힘드니 내실을 다지라.
65년생: 외부적으로 손재수가 따르니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한 운이다.
77년생: 자신보다 강한 상대로 인해 스트레스가 예상된다.
89년생: 일이 막히고 힘들 때에는 윗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말띠
54년생: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낄만한 일이 발생.
66년생: 타인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운.
78년생: 새로운 사람보다는 기존의 사람에게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운.
90년생: 언행에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

▷양띠
55년생: 매사에 넓은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때.
67년생: 주변에서 자신을 간섭하거나 답답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
79년생: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은 운이다. 좋은 일하고 구설에 휘말려
91년생: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만 진행하라.

▷원숭이띠
56년생: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68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천운이 따르니 생각보다 쉽게 풀릴 것이다.
80년생: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운. 신체에 무리가 가는 일은 삼가라.
92년생: 놀랄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니 원행은 삼가라.

▷닭띠
57년생: 예상하고 있던 것이 빗나가거나 사람으로 인해 실망.
69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할 것. 나쁜영향준다
81년생: 속에 담아두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불손하게 행동.
93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좀 더 계획을 세우고 때를 기다리라.

▷개띠
46년생: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봐라.
58년생: 외부적인 일은 이득이 많으나 내부적인 일은 좋지 못하다.
70년생: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아랫사람에게 신경 써라.
82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매사에 주의.

▷돼지띠
47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고 오히려 손재만 가져올 뿐이다.
59년생: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
71년생: 자신의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독단.
83년생: 한만큼 돌아오는 운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의 대가.